

##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김지민\*\* · 박성욱\*\*\*

### 〈요 약〉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문성이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수명주기(life cycle)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한다. 내부회계는 단순한 법적 준수 수단을 넘어, 재무정보의 정확성 제고, 자산 보호, 경영전략 실행을 지원하는 핵심 관리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내부회계 관련 공시가 강화되면서 담당 인력의 특성과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 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의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표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으로 구성되며, 내부회계 관련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도입기 기업에서는 자본조달 수요가 크고 제도의 성숙도가 낮아 내부회계 전문성이 이익조정에 기회주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재무보고 질 제고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기 기업에서는 투자자가 성장 잠재력과 재무성과를 함께 고려함에 따라 내부회계 전문성의 효과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셋째, 성숙기 기업에서는 투자자의 이익 민감도가 높고 감시 강도가 강화되면서,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쇠퇴기 기업에서는 실적 악화와 성장성 둔화로 인해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전문성이 이익조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무보고 질 제고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보고의 질 간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기업의 수명주기라는 환경적 요인을 반영함으로써, 동일한 제도적 장치라 하더라도 기업이 처한 경영 환경에 따라 그 효과

\* 본 논문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주저자의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대폭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입니다.

\*\*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세무사, [jiminkim@khu.ac.kr](mailto:jiminkim@khu.ac.kr), 주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sopark@khu.ac.kr](mailto:sopark@kh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5년 12월 4일

1차수정일 2025년 12월 19일

2차수정일 2026년 1월 1일

3차수정일 2026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2026년 2월 11일

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설계, 그리고 기업의 회계전략 수립 시 내부회계 전문성뿐 아니라 기업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내부회계, 내부회계 전문성, 내부회계 담당자, 재무보고의 질, 기업수명주기

## I. 서 론

Enron 사태 이후 제정된 Sarbanes-Oxley Act(SOX)는 경영자와 감사인의 내부통제 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재무보고 과정에서의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우리나라도 SOX를 참조하여 아시아 최초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무감사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후 2018년 11월 동 법률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회계담당자(내부회계관리자, 회계담당임원 및 회계담당직원)의 근무경력, 회계관련 경력 및 교육실적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기업 스스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기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에서는 내부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경력 정보의 공시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회계정보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부회계 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고 실제이익조정이 감소하며(정진향·마희영, 2012) 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이 상승하며(마희영·정진향, 2016), 나아가 횡령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며(배한수·권선국, 2015) 신용등급이 상승(채수준·이호영·유혜영, 2012)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된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기업의 내부회계 품질을 제고시켜 사전적으로 회계실패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내부회계의 전문성이 재무보고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의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배한수·권선국(2015)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추더라도, 기업 내 직위 간 공모로 인한 횡령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업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기업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전문성이 높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주요 경영 환경 요인인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기업의 수명주기는 도입기(introduction), 성장기(growth), 성숙기(maturity), 쇠퇴기(decline)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서 기업은 상이한 전략, 재무성과, 자본조달 구조, 정보수요자 특성에 직면한다(Hambrick and Schecter, 1983 ; Gort and Klepper, 1982 ; Faff et al., 2016). 이러한 차이는 외부정보이용자의 감시 강도와 정보 요구 수준, 그리고 경영자의 회계선택 유인을 변화시켜,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효과 또한 단계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서 수집한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경력 정보를 활용하여 내부회계 전문성을 측정하고, 수명주기별로 재무보고의 질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1) 내부회계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재무보고의 질을 개선하는지, (2) 그 효과가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구에 생애주기 관점을 접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관련 변수의 도출 과정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며,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한다.

## Ⅱ. 선행연구 및 가설 설정

### 1. 내부회계와 재무보고의 질

내부회계(internal accounting)는 재무보고의 질(financial reporting quality)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회계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Prawitt et al., 2009). 선행연구들은 내부회계 시스템이 강화될수록 재무보고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Phornlaphatrachakorn, 2019).

Nalukenge et al.(2017)은 실증분석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가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높이며,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내부감사자가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Prawitt et al.(2009)는 미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 시스템의 강도가 높을수록 재무보고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부정행위가 감소하고, 내부회계의 독립성과 품질이 이익 조정(earnings management)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 2. 내부회계 전문성, 역할과 상황적 관점

외국의 경우 내부회계·공시전문 인력의 보유현황에 대한 공시제도가 없어 내부회계 담당 인

력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제한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8년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에는 회계담당자의 직급별 근무경력과 교육실적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들은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 질을 제고한다는 결과를 다수 보고하였다.

이준일·최선화·최종학(2010)은 내부회계 담당 인력 비중이 높을수록 감사보수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이는 내부회계인력 투자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엄격한 감사에 관심을 기울이므로 외부감사인인 감사노력과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혜정·한종수(2018)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등기이사인 기업일수록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외부감사인인 내부회계관리자의 영향력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통제위험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진향·마희영(2012)은 내부회계 담당 인력이 많고 평균 경력이 길수록 실제이익조정이 감소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회계이익의 질이 제고됨을 확인하였다. 양준선·여영준(2016)은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평균 경력으로 측정한 인적자원투자가 많을수록 발생액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신보선·한종수·신혜정(2018)은 내부회계 담당 인력 비중과 평균 경력이 높을수록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감소해 재무보고 품질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이균봉·지상현·류예린(2012)은 내부회계·공시 전문인력, 특히 공인회계사 보유가 실물 이익조정 제어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김동영(2019)은 내부회계 담당자의 경력, 인원수, 공인회계사 수가 감사시간과 음(-)의 관계를 가지며, 특히 경제정의지수가 높은 기업에서 그 효과가 더 나타남을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 수준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내부회계 담당 인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경로를 통해 재무보고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단순한 회계지식의 보유 여부를 넘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제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핵심 인적자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규정 및 절차를 수립하고, 회계처리부서 및 내부회계 전담부서를 통해 일상적 거래의 승인·검토 과정을 관리하며, 오류나 부정 징후를 식별하고 시정 조치를 수행한다. 또한 복잡한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을 주도하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선별·제공하며,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담당한다. 이처럼 내부회계 담당 인력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재무보고 산출물 사이를 매개하는 운영자로서, 이들의 전문성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적 효과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성이 높은 내부회계 담당 인력은 기업의 사업모델과 거래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상응하는 통제활동을 설계 및 강화함으로써 회계추정의 자의성을 축소하고 일관된 회계정책 선택을 유도한다. 동시에, 경영자의 성과 압력

이 존재하더라도, 축적된 경험과 직업적 윤리에 기반하여 과도한 이익조정 요구를 견제하거나 제도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내부회계 전문성은 내부통제의 설계와 집행, 경영자와 외부감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완화, 회계정책 선택의 통제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무보고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항상 재무보고 품질 제고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직면한 경영 환경, 지배구조, 외부 감시 강도 등 제도적·조직적 맥락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제 기능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복잡한 회계기준을 이용한 정교한 이익조정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내부회계 전문성의 효과는 기업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상황적(contingent) 관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sup>1)</sup>

전문성의 성과에 대한 기여가 조직이 직면한 환경과 전략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적 관점은, 이사회 산업전문성과 전략적 변화 간 관계를 분석한 Oehmichen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적 관점에 기반하여,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기업수명주기라는 변수에 따라 재무보고의 질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구 가설을 설정한다. 즉 전문성의 수준 자체뿐 아니라, 그 전문성이 발휘·제약되는 제도적·조직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 3. 수명주기에 따른 재무보고의 질

#### 가. 도입기(Introduction Stage)

도입기 기업은 초기 시장 진입 단계로, 제품 개발·자금 조달·시장 개척에 따른 재무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무보고의 질이 낮은 경향이 있다. 내부통제 미비와 경영진의 집중적 혁신 투자로 인해 보고서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비용 인식의 왜곡 가능성도 존재한다(Hasan and Habib, 2017). 또한 산업 경험 부족과 내부통제 약점으로 오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Krishnan et al., 2021). 특히 내부회계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경력 기반의 전문성이 감시 기능보다는 일시적 실적 개선이나 이익 조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 도입기에는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양(+)의 관계가 완화될 것이다.

#### 나. 성장기(Growth Stage)

성장기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며, 자원 배분과 비용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내

1) 유익한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부통제 시스템도 점차 강화된다. 자본 조달과 투자자 유치를 위해 투명한 재무보고가 요구되지 만(Hasan and Habib, 2017), 일부 기업은 성과를 과대평가하거나 이익관리를 통해 기대를 충족 하려 하므로 재무보고 질이 저하될 수 있다(Faff et al., 2016). 이로 인해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한다.

가설 2 : 성장기에는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 다. 성숙기(Maturity Stage)

성숙기 기업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 단계에서는 자원 효율성과 비용 관리에 중점을 두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 재무보고의 질이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Krishnan et al., 2021). 외부 감사와의 협력이 활발하고 재무제표 오류 및 재작성 빈도가 낮으며, 보수적이고 투명한 보고를 통해 투자자와 채권자의 신뢰를 강화한다(Hansen and Cheung, 2018). 이러한 환경에서는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다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3 : 성숙기에는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양(+)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 라. 쇠퇴기(Decline Stage)

쇠퇴기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며,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과정에서 재무보고의 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익을 과장하거나 손실 인식을 지연하는 등 이익조정을 통해 보고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외부 감사의 의심과 재작성 빈도도 증가한다(Koh et al., 2015 ; Hasan and Cheung, 2018). 즉 쇠퇴기에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재무적 불확실성 속에서 내부회계 전문가들은 재무보고 품질에 힘을 쏟을 여력이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 품질 제고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 은폐나 이익 유연화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4 : 쇠퇴기에는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양(+)의 관계가 완화될 것이다.

### III. 연구설계

#### 1. 연구모형

수명주기에 따른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이 OLS회귀모형을 설정한다.

$$\begin{aligned} |PMDA| &= \beta_0 + \beta_1 IC + \beta_2 SIZE + \beta_3 LEV + \beta_4 GRW + \beta_5 ROA + \beta_6 CFO \\ |ACCQ| &\quad + \beta_7 PPER + \beta_8 LARGEST + \beta_9 FORN + \beta_{10} LOSS + \beta_{11} AGE \\ &\quad + \Sigma IND + \Sigma Year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1)}$$

$$\begin{aligned} |PMDA| &= \beta_0 + \beta_1 IC + \beta_2 IC \times LC\_I + \beta_3 LC\_I + \beta_4 SIZE + \beta_5 LEV + \beta_6 GRW \\ |ACCQ| &\quad + \beta_7 ROA + \beta_8 CFO + \beta_9 PPER + \beta_{10} LARGEST + \beta_{11} FORN \\ &\quad + \beta_{12} LOSS + \beta_{13} AGE + \Sigma IND + \Sigma Year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2)}$$

$$\begin{aligned} |PMDA| &= \beta_0 + \beta_1 IC + \beta_2 IC \times LC\_G + \beta_3 LC\_G + \beta_4 SIZE + \beta_5 LEV + \beta_6 GRW \\ |ACCQ| &\quad + \beta_7 ROA + \beta_8 CFO + \beta_9 PPER + \beta_{10} LARGEST + \beta_{11} FORN \\ &\quad + \beta_{12} LOSS + \beta_{13} AGE + \Sigma IND + \Sigma Year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3)}$$

$$\begin{aligned} |PMDA| &= \beta_0 + \beta_1 IC + \beta_2 IC \times LC\_M + \beta_3 LC\_M + \beta_4 SIZE + \beta_5 LEV + \beta_6 GRW \\ |ACCQ| &\quad + \beta_7 ROA + \beta_8 CFO + \beta_9 PPER + \beta_{10} LARGEST + \beta_{11} FORN \\ &\quad + \beta_{12} LOSS + \beta_{13} AGE + \Sigma IND + \Sigma Year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4)}$$

$$\begin{aligned} |PMDA| &= \beta_0 + \beta_1 IC + \beta_2 IC \times LC\_D + \beta_3 LC\_D + \beta_4 SIZE + \beta_5 LEV + \beta_6 GRW \\ |ACCQ| &\quad + \beta_7 ROA + \beta_8 CFO + \beta_9 PPER + \beta_{10} LARGEST + \beta_{11} FORN \\ &\quad + \beta_{12} LOSS + \beta_{13} AGE + \Sigma IND + \Sigma Year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5)}$$

<변수의 정의>

Dependent Variables : Financial Reporting Quality

|PMDA|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Kothari et al., 2005)의 절대값

|ACCQ| : 발생액의 질(Dechow and Dichev, 2002)의 절대값

Independent Variables : Internal Accounting Career(IC)

MANCAR :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의 자연로그값

MEMCAR : 내부회계인력의 평균 경력의 자연로그값

Interaction Variables : Life Cycle Stages

LC\_I : 해당 기업-연도 표본의 수명주기가 도입기이면 1, 아니면 0

LC\_G : 해당 기업-연도 표본의 수명주기가 성장기이면 1, 아니면 0

LC\_M : 해당 기업-연도 표본의 수명주기가 성숙기이면 1, 아니면 0

LC\_D : 해당 기업-연도 표본의 수명주기가 쇠퇴기이면 1, 아니면 0

Control Variables

SIZE : 기업규모(=기초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 : 부채비율(=기초 총부채 / 기초 총자산)

GRW : 매출액성장률(=t기 매출액 - t-1기 매출액) / t-1기 매출액

|                |                                          |
|----------------|------------------------------------------|
| <i>ROA</i>     | : 총자산이익률(=t기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
| <i>CFO</i>     | : 영업활동현금흐름(=t기 영업활동현금흐름 / 기초총자산)         |
| <i>PPER</i>    | : 유형자산 비율(=토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 기초총자산) |
| <i>LARGEST</i> | : 최대주주지분율(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
| <i>FORN</i>    | : 외국인투자자지분율                              |
| <i>LOSS</i>    | : 당해 손실여부                                |
| <i>AGE</i>     | : 기업연령(=당해연도-설립연도+1의 자연로그값)              |
| <i>IND</i>     | : 산업더미(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
| <i>YEAR</i>    | : 연도더미                                   |

식(1)은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만약, 내부회계의 전문성(IC)의 회귀계수인  $\beta_1$ 이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난다면,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의 품질이 증가한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2)는 도입기 기업과 그 외의 기업 간의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의 차이를 검증하는 모형이다. 도입기에서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가 강화된다면 도입기와 내부회계 전문성의 상호작용항(IC×LC\_I)의 회귀계수  $\beta_2$ 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반대로 완화된다면  $\beta_2$ 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일 것이다. 도입기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현금창출능력이 부족해 투자자가 명시적 이익수치보다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금 수요가 있는 도입기 기업은 내부회계 전문성을 이익 조정에 활용하여 감시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보고의 질 간의 긍정적 관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beta_2$ 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식(3)은 성장기 기업과 그 외의 기업 간의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의 차이를 검증하는 모형이다. 성장기에는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가 강화된다면 성장기와 내부회계 전문성의 상호작용항(IC×LC\_G)의 회귀계수  $\beta_2$ 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며, 반대로 완화된다면  $\beta_2$ 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일 것이다. 성장기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현금창출능력이 모두 높아, 투자자는 명시적 이익수치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에도 주목한다(Fodor et al., 2021). 이 시기에는 자금 수요로 인한 투명한 재무보고 요구가 크지만 성장 기대도 여전히 높아, 내부회계 전문성을 통한 재무보고 품질 조정 유인이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beta_2$ 는 유의한 양(+) 또는 음(-)의 값을 나타낼 수 있다.

식(4)는 성숙기 기업과 그 외의 기업 간의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의 차이를 검증하는 모형이다. 성숙기에서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가 강화된다면 성숙기와 내부회계 전문성의 상호작용항(IC×LC\_M)의 회귀계수  $\beta_2$ 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며, 반대로 완화된다면  $\beta_2$ 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일 것이다. 성숙기 기업은 성장가

능성은 낮지만 현금창출능력이 높아, 투자자는 잠재적 성장보다 명시적 이익 수치에 더 주목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의 감시가 강화되며, 내부회계 전문성을 통해 재무보고 품질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beta_2$ 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식(5)는 쇠퇴기 기업과 그 외의 기업 간의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의 차이를 검증하는 모형이다. 쇠퇴기에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가 강화된다면 쇠퇴기와 내부회계 전문성의 상호작용항( $IC \times LC\_D$ )의 회귀계수  $\beta_2$ 가 유의한 음(-)의 값을, 반대로 완화된다면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쇠퇴기 기업은 현금창출능력과 성장 가능성이 모두 낮아지고 내부회계 기능도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투자자는 현재 성장가능성보다 청산가치나 새로운 투자기회에 주목하며, 이에 따라 기업은 손실 은폐나 이익 조정을 시도할 유인이 커진다. 따라서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 품질 제고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beta_2$ 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sup>2)</sup>

종속변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재무보고의 질의 대용치로 사용하는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 $|PMDA|$ )과 Dechow and Dichev(2002)의 발생액의 질( $|ACCQ|$ )의 절대값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내부회계 전문성(IC)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MANCAR)과 내부회계인력의 평균 경력(MEMCAR)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들을 사용하였고 결과 해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변수의 정의

### 가. 내부회계 전문성

#### (1) 내부회계관리자 경력(MANCAR)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이 공시된다. <표 1>에서 내부회계관리자는 기업의 내부회계와 관련된 총책임자로, 회계담당임원과 회계담당직원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실질적인 내부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내부회계 전문성의 주요 지표는 근무연수와 회계경력이며, 근무연수가 길수록 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되어 전문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회계경력이 길수록 축적된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제도적 범위 내에서 복잡한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근무연수에는 타 부서 근무 기간도 포함되므로 내부회계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Koo and Ki, 2020 ; 오수진 · 유승원, 2022)에서도 내부회계 전문성 측정

2) 개별 수명주기에 대한 분석을 하기보다, 성숙기를 제외한 수명주기를 모두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는 크게 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시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을 활용한 바 있으며, 본 연구 역시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sup>3)</sup>에 자연로그값(MANCAR)을 사용하였다.

〈표 1〉 내부회계관리 인력의 경력 및 교육실적 현황

| 구 분     | 성명 | 전화번호 | 회계담당자<br>등록여부 | 경력    |       | 교육실적 |    |
|---------|----|------|---------------|-------|-------|------|----|
|         |    |      |               | 근무 연수 | 회계 경력 | 당기   | 누적 |
| 내부회계관리자 |    |      |               |       |       |      |    |
| 회계담당임원  |    |      |               |       |       |      |    |
| 회계담당직원  |    |      |               |       |       |      |    |

## (2) 내부회계인력의 평균 경력(MEMCAR)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 현황에 관한 내용을 공시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공시항목에는 기업의 내부회계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부서가 포함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 운영 실태를 감시·평가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개정·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 인원과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핵심적인 감독 기능을 담당한다. 회계처리 부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제로 운영·관리하며 재무보고 전 과정을 집행·통제하는 직접적 주체이며, 일부 기업은 별도의 내부회계 전담부서를 두기도 한다.

이와 달리,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최종 승인하고 내부통제 전반을 감독한다. 전산운영부서는 회계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며, 자금운용부서는 자금의 적정 사용을 감독한다. 인사담당부서는 내부회계 실패 시 징계 업무를, 공시담당부서는 회계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처럼 내부회계는 기업 내 여러 부서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핵심 내부통제 기능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계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핵심 부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전산운영부서·인사관리부서 등 간접 지원부서는 제외하고, “감사위원회”, “회계처리부서”, “내부회계전담부서”에 한정하여 내

3) 2022년 삼성전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로 변수 도출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구 분     | 성명  | 전화번호         | 회계담당자<br>등록여부 | 경력    |       | 교육실적 |    |
|---------|-----|--------------|---------------|-------|-------|------|----|
|         |     |              |               | 근무 연수 | 회계 경력 | 당기   | 누적 |
| 내부회계관리자 | 박○○ | 031-277-×××× | ○             | 34년   | 24년   | 1년   | 2년 |
| 회계담당임원  | 김○○ | 031-277-×××× | ○             | 29년   | 29년   | 1년   | 4년 |
| 회계담당직원  | 전○○ | 031-277-×××× | ○             | 18년   | 10년   | 2년   | 2년 |

—내부회계관리자 회계경력 : 24년의 자연로그값

부회계 담당 인원과 평균 경력 월수를 곱한 뒤 총 인원 수로 나눈 값<sup>4)</sup>의 자연로그값을 내부회계 인력의 평균 경력(MEMCAR)으로 사용하였다.

〈표 2〉 내부회계관리조직의 인력 구성 및 자격 보유 현황

| 구 분      | 총원  | 내부회계<br>담당인력수 | 공인회계사 자격증<br>소지자 수 | 비율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br>평균경력월수 |
|----------|-----|---------------|--------------------|-----|----------------------|
| 감사위원회    |     |               |                    |     |                      |
| 이사회      |     |               |                    |     |                      |
| 회계처리부서   |     |               |                    |     |                      |
| 내부회계관리부서 |     |               |                    |     |                      |
| 전산운용부서   |     |               |                    |     |                      |
| 자금운용부서   |     |               |                    |     |                      |
| 인사관리부서   |     |               |                    |     |                      |
| ...      | ... | ...           | ...                | ... | ...                  |

#### 나. 재무보고의 질

##### (1)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Kothari et al., 2005)

수정 Jones 모형은 극단적인 기업성과의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어왔고, 이에 대한 효과를 통제하고자 Kothari et al.(2005)은 영업성과를 반영한 성과대응(performance-

4) 2022년 삼성전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로 변수 도출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4)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소속기관<br>또는 부서 | 총원  | 내부회계<br>담당인력수 | 공인회계사 자격증<br>소지자 수 | 비율<br>(B/A×100)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br>평균경력월수 |
|---------------|-----|---------------|--------------------|-----------------|----------------------|
| 감사(위원회)       | 3   | 3             | —                  | —               | 54                   |
| 이사회           | 11  | 11            | —                  | —               | 23                   |
| 내부회계관리총괄      | 1   | 1             | —                  | —               | 13                   |
| 회계처리부서        | 46  | 36            | 6                  | 16.7%           | 130                  |
| 자금운영부서        | 20  | 20            | 2                  | 10.0%           | 148                  |
| 전산운영부서        | 181 | 39            | —                  | —               | 244                  |
| 공시관련부서        | 19  | 12            | —                  | —               | 140                  |
| 인사관리부서        | 67  | 39            | —                  | —               | 148                  |
| 내부회계관리부서      | 14  | 13            | 3                  | 23.1%           | 137                  |
| 내부회계평가부서      | 3   | 3             | —                  | —               |                      |

— 내부회계 담당 인력 평균경력 : [감사위원회(3×54)+내부회계관리총괄(1×13)+회계처리부서(36×130)+내부회계관리부서(13×137)] / 인력수 합계(3+1+36+13)÷12=10.434년의 자연로그값

matched) 재량적 발생액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수정 Jones 모형에 전기 총자산순이익률(*ROA*)을 통제한 뒤 산업-연도별 횡단면 회귀분석에 따라 식(6)으로 추정한 잔차값의 절대값을 사용한다.

$$\frac{TAC_{i,t}}{ASSET_{i,t-1}} = \beta_0 + \beta_1 \frac{1}{ASSET_{i,t-1}} + \beta_2 \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ASSET_{i,t-1}} + \beta_3 \frac{PPE_{i,t}}{ASSET_{i,t-1}} + \beta_4 \frac{NI_{i,t-1}}{ASSET_{i,t-1}} + \varepsilon_{i,t} \quad \text{식(6)}$$

<변수의 정의>

$TAC_{i,t}$  : 총유동발생액(=Δ유동자산-Δ유동부채-Δ현금및현금성자산-Δ유동성장기부채)

$ASSET_{i,t-1}$  : t기 기초총자산

$\Delta REV_{i,t}$  : t기 매출액 변화(=t기 매출액 - t-1기 매출액)

$\Delta REC_{i,t}$  : t기 매출채권 변화(=t기 매출채권 - t-1기 매출채권)

$PPE_{i,t}$  : 감가상각대상 자산(=유형자산 - 토지 - 건설중인자산)

$NI_{i,t-1}$  : t-1기 당기순이익

## (2) 발생액의 질(Dechow and Dichev, 2002)

$$\frac{TAC_{i,t}}{ASSET_{i,t-1}} = \beta_0 + \beta_1 \frac{1}{ASSET_{i,t-1}} + \beta_2 \frac{CFO_{i,t-1}}{ASSET_{i,t-1}} + \beta_3 \frac{CFO_{i,t}}{ASSET_{i,t-1}} + \beta_4 \frac{CFO_{i,t+1}}{ASSET_{i,t-1}} + \varepsilon_{i,t} \quad \text{식(7)}$$

본 연구에서는 Dechow and Dichev(2002)의 모델에 의하여 산출된 잔차의 5개년 표준편차(*DSAQ*)와 잔차의 절대값(*DAAQ*)을 발생액의 질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Dechow and Dichev(2002)는 발생액의 질은 현재의 운전자본이 과거, 당기 및 미래의 영업현금흐름과 갖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당기 운전자본발생액(*TAC*)을 종속변수로 하고 전기의 영업현금흐름( $CFO_{t-1}$ ), 당기 영업현금흐름( $CFO_t$ ), 그리고 미래 영업현금흐름( $CFO_{t+1}$ )을 독립변수로 한 식(7)의 회귀식으로 잔차를 추정하고, 잔차의 절대값을 t년의 발생액의 질로 하였다. 위 모형에서의 잔차( $\varepsilon$ )는 과거, 당기, 미래의 영업현금으로 설명되지 않는 운전자본발생액의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Dechow and Dichev(2002)는 잔차의 표준편차 대신 절대값을 이용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제시한 바, 본 연구에서는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재무보고의 질을 측정할 것과 동일하게 잔차의 절대값을 사용하였다. 본 변수 모두 절대값이 클수록 재량적 발생이 크고, 회계처리의 변동성이 높으며, 재무보고의 질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이들 변수는 재량적 발생의 방향(이익 상향·이익 하향)을 구분하지 않고 그 규모를 절대값으로 측정하므로, 값이 커진다는 것은 이익의 과대계상뿐 아니라 과소계상을 포함하여 재량적 회계처리의 전반적인 정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 다. 수명주기

기업 수명주기 관련 연구에서 수명주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Anthony and Ramesh(1992)에

서 처음 제시한 기업 재무변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비교적 최근에는 Dickinson(2011)의 현금흐름 패턴을 활용한 방법이 있다. 두 측정 방법 모두 최근 기업수명주기 관련 연구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Anthony and Ramesh(1992)에서 제시한 상대적 수명주기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일부 변형함으로써 기업 수명주기를 측정하였다(Hribar and Yehuda, 2008 ; DeAngelo et al., 2006 ; Bens et al., 2002).<sup>5)</sup>

본 연구에서 수명주기를 측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수명주기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변수를 기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① 매출액 성장률(Anthony and Ramesh, 1992)
- ② 유형자산성장률(Anthony and Ramesh, 1992)
- ③ 종업원증가율(Hribar and Yehuda, 2008)
- ④ 총자본 대비 이익잉여금 비율(DeAngelo et al., 2006)
- ⑤ 시가-장부가 비율(Bens et al., 2002)을 사용하였다.

둘째, 각 변수는 기업의 영업성과, 대외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조정하기 위해 각 기업별 과거 5년 값에 대하여 중위수 값을 도출하였다.

셋째, 산업 및 연도별 특성에 따라 수명주기 측정 변수의 체계적인 차이를 통제하고자 동일 산업-연도별 표본집단(subsample)을 구성하고, 각 표본집단별 5개의 수명주기 측정변수를 상대적 크기에 따라 3분위수로 나누었다.

넷째, 각 변수에 대해 1분위(high)에 속할 경우 0, 2분위(middle)에 속할 경우 1, 3분위(low)에 속할 경우 2의 값을 부여하였다. 단, ④ 총자본 대비 이익잉여금 비율의 경우 수명주기가 진행될수록 높은 값을 갖게 되므로 1분위(high)에 속할 경우 2, 2분위(middle)에 속할 경우 1, 3분위(low)에 속할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표 3〉 기업 수명주기 측정을 위한 분류 기준 및 변수 정의

| 구 분         | ①<br>매출액<br>성장률 | ②<br>유형자산<br>성장률 | ③<br>종업원<br>증가율 | ④<br>총자본 대비<br>이익잉여금 비율 | ⑤<br>시가-장부가<br>비율 |
|-------------|-----------------|------------------|-----------------|-------------------------|-------------------|
| 1분위(high)   | 0               | 0                | 0               | 2                       | 0                 |
| 2분위(middle) | 1               | 1                | 1               | 1                       | 1                 |
| 3분위(low)    | 2               | 2                | 2               | 0                       | 2                 |

\* ④의 경우 다른 변수와 반대의 특성이므로 순위가 높을수록 높은 값 부여

5) Dickinson의 수명주기 측정은 기업의 현금 흐름 패턴에 기반하여 측정하는데, 이 방식이 기업의 복잡한 경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현금흐름 이외에도 시장 상황, 경쟁력,

다섯째, 위 <표 3>에서 부여한 5개 측정변수의 상대적 순위에 따라 부여된 값을 기업-연도 별로 합산하여 수명주기 점수(SCORE)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명주기 점수(SCORE)에 따라 표본 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으로 나누었다. 0~2점인 경우 도입기(Introduction), 3~4점인 경우 성장기(Growth), 5~6점인 경우 성숙기(Mature), 7~10점인 경우 쇠퇴기(Decline)으로 구분하였고 각 변수에 1의 값을 부여하였다.

### 3. 표본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개년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sup>6)</sup>. 분석을 위한 기업 목록 및 재무제표, 주가 데이터는 NICE신용평가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 통제변수에 사용된 지분율 데이터는 한국상장사협의회 데이터베이스인 TS-2000에서 추출하였다. 내부회계 관련 데이터는 DART에서 “내부회계운영보고서”란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기(hand collecting)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표본은 제외하였으며, 연구 모형에서 사용된 일부 측정치가 산업-연도별 잔차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특정연도 산업 내 기업이 10개 미만인 표본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산일이 12월이 아닌 기업을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7,475개의 표본<sup>7)</sup>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실증분석 결과

### 1. 기술통계량

<표 4>는 본 연구 표본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재무보고의 질의 대응치인 성과대응

---

기술 변화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기업의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배제될 수 있다(Hribar and Yehuda, 2015). 또한, 단계별 구분이 모호하여 기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Habib and Hasan, 2019), 기업은 수명주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비표준적인 경로를 따를 수 있는데, 이러한 복잡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Krishnan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금흐름이라는 단일 변수가 아닌 다수의 회계 정보를 활용한 성장성, 유보율, 주가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 6)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발생액의 질을 측정할 때 미래( $t+1$ 기)의 현금흐름으로 당기( $t$ 기)의 발생액을 측정해야하므로,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는 2023년까지이지만 2022년까지의 기업-연도 표본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 7) 본 연구의 모든 비율변수는 극단치에 의한 왜곡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상하위 1% 수준에서 조정(winsorizing)한다.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 $|PMDA|$ )의 평균(중위수)은 0.076(0.045)로 나타났으며, 다른 대용치인 발생액의 질의 절대값( $|ACCQ|$ )의 평균(중위수)은 0.148(0.086)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한 선행연구 기술통계량과 비교하였을 때 질적으로 유사한 값으로서 적절히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회계전문성의 대용치인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의 자연로그값( $MANCAR$ )의 평균(중위수)는 3.153(3.091)로 대략 19년~24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용치인 내부회계인력 평균 경력의 자연로그값( $MEMCAR$ )에 대한 평균(중위수)는 2.001(1.813)으로 약 7~10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별 내부회계관리자 경력( $MANCAR$ )과 내부회계인력 평균 경력( $MEMCAR$ )의 평균 및 중위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up>8)</sup>

〈표 4〉 기술통계량

| 변수        | N     | Mean   | Std   | Min    | Q1     | Median | Q3     | Max    |
|-----------|-------|--------|-------|--------|--------|--------|--------|--------|
| $ PMDA $  | 7,475 | 0.076  | 0.096 | 0.000  | 0.018  | 0.045  | 0.094  | 0.571  |
| $ ACCQ $  | 7,475 | 0.148  | 0.181 | 0.000  | 0.037  | 0.086  | 0.182  | 0.985  |
| $MANCAR$  | 7,475 | 3.153  | 0.116 | 1.386  | 2.773  | 3.091  | 3.296  | 3.526  |
| $MEMCAR$  | 7,475 | 2.001  | 1.845 | 1.413  | 1.541  | 1.813  | 2.153  | 2.813  |
| $LC\_I$   | 7,475 | 0.129  | 0.335 | 0.000  | 0.000  | 0.000  | 0.000  | 1.000  |
| $LC\_G$   | 7,475 | 0.259  | 0.438 | 0.000  | 0.000  | 0.000  | 1.000  | 1.000  |
| $LC\_M$   | 7,475 | 0.314  | 0.464 | 0.000  | 0.000  | 0.000  | 1.000  | 1.000  |
| $LC\_D$   | 7,475 | 0.298  | 0.457 | 0.000  | 0.000  | 0.000  | 1.000  | 1.000  |
| $SIZE$    | 7,475 | 19.119 | 1.467 | 16.521 | 18.136 | 18.844 | 19.764 | 24.246 |
| $LEV$     | 7,475 | 0.369  | 0.211 | 0.026  | 0.197  | 0.357  | 0.513  | 0.916  |
| $GRW$     | 7,475 | 0.120  | 0.476 | -0.744 | -0.077 | 0.050  | 0.199  | 3.105  |
| $ROA$     | 7,475 | 0.012  | 0.140 | -0.559 | -0.026 | 0.026  | 0.075  | 0.397  |
| $CFO$     | 7,475 | 0.034  | 0.103 | -0.343 | -0.011 | 0.035  | 0.087  | 0.329  |
| $PPER$    | 7,475 | 0.135  | 0.125 | 0.000  | 0.035  | 0.101  | 0.200  | 0.560  |
| $LARGEST$ | 7,475 | 0.394  | 0.169 | 0.069  | 0.267  | 0.386  | 0.509  | 0.786  |
| $FORN$    | 7,475 | 0.067  | 0.101 | 0.000  | 0.011  | 0.026  | 0.076  | 0.548  |
| $LOSS$    | 7,475 | 0.321  | 0.467 | 0.000  | 0.000  | 0.000  | 1.000  | 1.000  |
| $AGE$     | 7,475 | 3.241  | 0.687 | 1.099  | 2.944  | 3.258  | 3.784  | 4.357  |

8)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내부회계 인력의 절대적 경력 수준 차이라기보다,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이 수명 주기별로 상이한 자본조달 환경과 감시 강도, 경영자 성과압력 속에서 어떻게 활용·제약되는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 1) 변수의 정의

- $|PMDA|$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Kothari et al., 2005)의 절대값  
 $|ACCQ|$  : 발생액의 질(Dechow and Dichev, 2002)의 절대값  
 $MANCAR$  :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의 자연로그값  
 $MEMCAR$  : 내부회계인력의 평균 경력의 자연로그값  
 $LC\_I$  : 해당 기업-연도 표본의 수명주기가 도입기이면 1, 아니면 0  
 $LC\_G$  : 해당 기업-연도 표본의 수명주기가 성장기이면 1, 아니면 0  
 $LC\_M$  : 해당 기업-연도 표본의 수명주기가 성숙기이면 1, 아니면 0  
 $LC\_D$  : 해당 기업-연도 표본의 수명주기가 쇠퇴기이면 1, 아니면 0  
 $SIZE$  : 기업규모(=기초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  : 부채비율(=기초 총부채 / 기초 총자산)  
 $GRW$  : 매출액성장률(=t기 매출액 - t-1기 매출액) / t-1기 매출액  
 $ROA$  : 총자산이익률(=t기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CFO$  : 영업활동현금흐름 (=t기 영업활동현금흐름 / 기초총자산)  
 $PPER$  : 유형자산 비율(=토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 기초총자산)  
 $LARGEST$  : 최대주주지분율(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FORN$  : 외국인투자자지분율  
 $LOSS$  : 당해 손실여부  
 $AGE$  : 기업연령(=당해연도-설립연도+1의 자연로그값)

수명주기 변수를 살펴보면 도입기( $LC\_I$ ), 성장기( $LC\_G$ ), 성숙기( $LC\_M$ ), 쇠퇴기( $LC\_D$ )의 평균이 0.129, 0.259, 0.314, 0.298로 나타나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성숙기인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OLS 회귀분석

## 가. 가설 검증결과 : 사전 검증

〈표 5〉 OLS회귀분석 결과 ( $|PMDA|$ )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PMDA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 -value      | $\beta$       | $t$ -value      |
| <i>Intercept</i> | 2.485                         | 10.603***       | 2.484         | 10.598***       |
| <b><i>IC</i></b> | <b>-0.129</b>                 | <b>-2.204**</b> | <b>-0.634</b> | <b>-2.289**</b> |
| <i>SIZE</i>      | -0.008                        | -10.460***      | -0.008        | -10.460***      |
| <i>LEV</i>       | 0.036                         | 8.193***        | 0.036         | 8.185***        |
| <i>GRW</i>       | 0.016                         | 9.011***        | 0.016         | 8.989***        |
| <i>ROA</i>       | -0.084                        | -11.266***      | -0.084        | -11.246***      |
| <i>CFO</i>       | -0.012                        | -1.239          | -0.012        | -1.245          |

〈표 5〉 OLS회귀분석 결과 ( $|PMDA|$ ) (계속)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PMDA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PPER         | -0.049                        | -6.566*** | -0.048    | -6.544*** |
| LARGEST      | -0.032                        | -6.095*** | -0.032    | -6.128*** |
| FORN         | 0.021                         | 2.107**   | 0.021     | 2.104**   |
| LOSS         | 0.008                         | 3.804***  | 0.008     | 3.824***  |
| AGE          | -0.006                        | -5.063*** | -0.006    | -5.085*** |
| Fixed Effect | Included                      |           | Included  |           |
| F-value      | 34.482***                     |           | 34.432*** |           |
| Adj_Rsq      | 0.158                         |           | 0.158     |           |
| N_obs        | 7,475                         |           | 7,475     |           |

1) 변수의 정의는 &lt;표 4&gt;를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6〉 OLS회귀분석 결과 ( $|ACCQ|$ )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ACCQ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Intercept    | -2.484                        | -10.598***      | -2.478        | -10.148***      |
| <b>IC</b>    | <b>-0.155</b>                 | <b>-2.292**</b> | <b>-0.636</b> | <b>-2.439**</b> |
| SIZE         | -0.008                        | -10.578***      | -0.008        | -10.577***      |
| LEV          | 0.023                         | 5.440***        | 0.023         | 5.441***        |
| GRW          | 0.014                         | 8.537***        | 0.014         | 8.521***        |
| ROA          | -0.117                        | -16.026***      | -0.117        | -16.015***      |
| CFO          | -0.013                        | -1.384          | -0.013        | -1.385          |
| PPER         | -0.054                        | -7.375***       | -0.054        | -7.362***       |
| LARGEST      | -0.024                        | -4.817***       | -0.024        | -4.822***       |
| FORN         | 0.035                         | 3.748***        | 0.035         | 3.747***        |
| LOSS         | 0.009                         | 4.684***        | 0.009         | 4.694***        |
| AGE          | -0.008                        | -6.235***       | -0.008        | -6.244***       |
| Fixed Effect | Included                      |                 | Included      |                 |
| F-value      | 46.357***                     |                 | 46.355***     |                 |
| Adj_Rsq      | 0.202                         |                 | 0.202         |                 |
| N_obs        | 7,475                         |                 | 7,475         |                 |

1) 변수의 정의는 &lt;표 4&gt;를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5>와 <표 6>은 식(1)의 OLS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식(1)은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의 질이 증가하는지 사전적으로 검증하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보고의 질 중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재무보고의 질( $|PMDA|$ )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회계경력( $MANCAR$ ) 변수의 회귀계수인  $\beta_1$ 은  $-0.129(t=-2.204)$ 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내부회계인력의 평균 경력( $MEMCAR$ ) 변수의 회귀계수인  $\beta_1$  역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둘째, 재무보고의 질 중 발생액의 질로 측정된 재무보고의 질( $ACCQ$ )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회계경력( $MANCAR$ ) 변수의 회귀계수인  $\beta_1$ 은  $-0.155(t=-2.292)$ 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으며, 내부회계인력의 평균 경력( $MEMCAR$ ) 변수의 회귀계수인  $\beta_1$  역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자와 내부회계인력의 회계경력을 통해 측정된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을수록 재무보고 품질이 향상됨을 의미하며, 기존 선행연구와도 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자나 내부회계 인력의 회계경력이 길수록 내부통제 기능을 보다 적절히 작동시켜 안정적이고 위험회피적인 회계의사결정을 수행하며, 그 결과 재량적 발생액 규모와 변동성이 감소하여 재무보고 질이 제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나. 가설 1 검증결과 : 도입기

<표 7> OLS회귀분석 결과 ( $|PMDA|$ )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PMDA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 -value      | $\beta$      | $t$ -value      |
| <i>Intercept</i>      | 5.530                         | 17.827***       | 5.530        | 17.828***       |
| <i>IC</i>             | -1.130                        | -2.228**        | -1.831       | -3.409***       |
| <b><i>IC×LC_I</i></b> | <b>3.336</b>                  | <b>4.443***</b> | <b>3.679</b> | <b>5.751***</b> |
| <i>LC_I</i>           | 0.590                         | 27.048***       | 0.490        | 17.082***       |
| <i>SIZE</i>           | -0.008                        | -10.265***      | -0.008       | -10.276***      |
| <i>LEV</i>            | 0.037                         | 8.284***        | 0.036        | 8.273***        |
| <i>GRW</i>            | 0.015                         | 8.731***        | 0.015        | 8.709***        |
| <i>ROA</i>            | -0.086                        | -11.542***      | 0.086        | -11.512***      |
| <i>CFO</i>            | -0.013                        | -1.396          | -0.013       | -1.393          |
| <i>PPER</i>           | -0.052                        | -7.036***       | -0.052       | -7.009***       |
| <i>LARGEST</i>        | -0.032                        | -6.117***       | -0.032       | -6.148***       |
| <i>FORN</i>           | 0.016                         | 1.673*          | 0.016        | 1.676*          |
| <i>LOSS</i>           | 0.008                         | 4.000***        | 0.008        | 4.027***        |
| <i>AGE</i>            | -0.005                        | -4.363***       | -0.006       | -4.381***       |

〈표 7〉 OLS회귀분석 결과 ( $|PMDA|$ ) (계속)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PMDA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Fixed Effect | Included                      |         | Included  |         |
| F-value      | 33.594***                     |         | 33.542*** |         |
| Adj_Rsq      | 0.159                         |         | 0.159     |         |
| N_obs        | 7,475                         |         | 7,475     |         |

1) 변수의 정의는 &lt;표 4&gt;를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8〉 OLS회귀분석 결과 ( $|ACCQ|$ )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ACCQ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i>Intercept</i>      | -5.531                        | -17.827***    | -5.531       | -18.277***    |
| <i>IC</i>             | -0.574                        | -1.479        | -0.570       | -1.179        |
| <b><i>IC×LC_I</i></b> | <b>3.470</b>                  | <b>1.780*</b> | <b>3.466</b> | <b>1.840*</b> |
| <i>LC_I</i>           | 0.590                         | 7.071***      | 0.588        | 6.921***      |
| <i>SIZE</i>           | -0.008                        | -10.335***    | -0.008       | -10.345***    |
| <i>LEV</i>            | 0.024                         | 5.545***      | 0.024        | 5.543***      |
| <i>GRW</i>            | 0.014                         | 8.207***      | 0.014        | 8.188***      |
| <i>ROA</i>            | -0.120                        | -16.377***    | -0.120       | -16.357***    |
| <i>CFO</i>            | -0.015                        | -1.579        | -0.015       | -1.570        |
| <i>PPER</i>           | -0.058                        | -7.965***     | -0.058       | -7.949***     |
| <i>LARGEST</i>        | -0.024                        | -4.852***     | -0.024       | -4.856***     |
| <i>FORN</i>           | 0.030                         | 3.220***      | 0.030        | 3.225***      |
| <i>LOSS</i>           | 0.010                         | 4.928***      | 0.010        | 4.946***      |
| <i>AGE</i>            | -0.007                        | -5.353***     | -0.007       | -5.359***     |
| Fixed Effect          | Included                      |               | Included     |               |
| F-value               | 45.292***                     |               | 45.289***    |               |
| Adj_Rsq               | 0.204                         |               | 0.204        |               |
| N_obs                 | 7,475                         |               | 7,475        |               |

1) 변수의 정의는 &lt;표 4&gt;를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7>과 <표 8>은 본 연구의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식(2)의 OLS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식(2)는 도입기일 때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가 다른 수명주기 단계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보고의 질 중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재무보고의 질( $|PMDA|$ )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회계경력과 도입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ANCAR \times LC\_I$ )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3.336( $t=4.443$ )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내부회계인력 평균 경력과 도입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EMCAR \times LC\_I$ ) 변수의 회귀계수인  $\beta_2$  역시 3.679( $t=5.751$ )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둘째, 재무보고의 질 중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 재무보고의 질( $|ACCQ|$ )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회계경력과 도입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ANCAR \times LC\_I$ )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3.470( $t=1.780$ )으로, 내부회계인력 평균 경력과 도입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EMCAR \times LC\_I$ )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3.466( $t=1.840$ )으로 각각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과 내부회계인력의 회계경력으로 대응되는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의 품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도입기에는 완화됨을 암시한다. 즉, 실적은 낮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아 외부자본 조달 수요가 큰 도입기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숙도가 낮아, 경력 기반의 전문성을 활용해 이익을 상승시키거나 유연화하는 등의 회계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재무보고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다. 가설 2 검증결과 : 성장기

<표 9> OLS회귀분석 결과 ( $|PMDA|$ )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PMDA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 -value    | $\beta$       | $t$ -value    |
| Intercept                          | 5.843                         | 18.488**      | 5.842         | 18.484**      |
| IC                                 | -0.954                        | -2.612**      | -0.911        | -2.642**      |
| <b>IC <math>\times</math> LC_G</b> | <b>-0.056</b>                 | <b>-0.312</b> | <b>-0.342</b> | <b>-0.277</b> |
| LC_G                               | 0.015                         | 1.242         | 0.001         | 0.098         |
| SIZE                               | -0.008                        | -10.410**     | -0.008        | -10.413**     |
| LEV                                | 0.036                         | 8.185**       | 0.036         | 8.179**       |
| GRW                                | 0.015                         | 8.929**       | 0.015         | 8.924**       |
| ROA                                | -0.084                        | -11.283**     | -0.084        | -11.254**     |
| CFO                                | -0.012                        | -1.232        | -0.012        | -1.247        |
| PPER                               | -0.049                        | -6.607**      | -0.049        | -6.580**      |
| LARGEST                            | -0.032                        | -6.102**      | -0.032        | -6.121**      |
| FORN                               | 0.020                         | 2.079**       | 0.020         | 2.071**       |

〈표 9〉 OLS회귀분석 결과 ( $|PMDA|$ ) (계속)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PMDA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LOSS         | 0.008                         | 3.888***  | 0.008     | 3.902***  |
| AGE          | -0.006                        | -4.984*** | -0.006    | -4.986*** |
| Fixed Effect | Included                      |           | Included  |           |
| F-value      | 33.251***                     |           | 33.178*** |           |
| Adj_Rsq      | 0.358                         |           | 0.357     |           |
| N_obs        | 7,475                         |           | 7,475     |           |

1) 변수의 정의는 &lt;표 4&gt;를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10〉 OLS회귀분석 결과 ( $|ACCQ|$ )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ACCQ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Intercept      | -5.842                        | -18.483***   | -5.847       | -18.858***   |
| IC             | -0.664                        | 1.625        | -0.663       | 1.550        |
| <b>IC×LC_G</b> | <b>0.529</b>                  | <b>0.393</b> | <b>0.526</b> | <b>0.168</b> |
| LC_G           | 0.008                         | 0.685        | 0.009        | 0.778        |
| SIZE           | -0.008                        | -10.529***   | -0.008       | -10.541***   |
| LEV            | 0.023                         | 5.434***     | 0.023        | 5.437***     |
| GRW            | 0.014                         | 8.464***     | 0.014        | 8.453***     |
| ROA            | -0.117                        | -16.040***   | -0.117       | -16.032***   |
| CFO            | -0.013                        | -1.380       | -0.013       | -1.384       |
| PPER           | -0.054                        | -7.413***    | -0.054       | -7.397***    |
| LARGEST        | -0.024                        | -4.819***    | -0.024       | -4.830***    |
| FORN           | 0.034                         | 3.716***     | 0.034        | 3.714***     |
| LOSS           | 0.009                         | 4.758***     | 0.009        | 4.744***     |
| AGE            | -0.007                        | -6.147***    | -0.007       | -6.153***    |
| Fixed Effect   | Included                      |              | Included     |              |
| F-value        | 44.696***                     |              | 44.697***    |              |
| Adj_Rsq        | 0.402                         |              | 0.402        |              |
| N_obs          | 7,475                         |              | 7,475        |              |

1) 변수의 정의는 &lt;표 4&gt;를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9>와 <표 10>은 본 연구의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식(3)의 OLS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식(3)은 성장기일 때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가 다른 수명주기 단계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보고의 질 중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재무보고의 질( $|PMDA|$ )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회계 경력과 성장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ANCAR \times LC\_G$ )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내부회계인력 평균 경력과 성장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beta_2$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재무보고의 질 중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 재무보고의 질( $ACCQ$ )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회계 경력과 성장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ANCAR \times LC\_G$ )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0.529( $t=0.39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으며, 내부회계인력 평균 경력과 성장기 여부의 회귀계수인  $\beta_2$  역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성장기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자와 내부회계인력의 경력으로 측정한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성장기 기업은 실적과 성장성이 모두 높아 투자자가 현재 이익실적과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므로, 도입기 또는 쇠퇴기처럼 이익조정을 위한 강한 유인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성장기 기업은 투자자가 명시적 이익 실적과 잠재적 비재무 정보를 함께 고려하므로 현재의 이익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외부자금조달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경력 기반의 전문성을 활용한 이익 조정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라. 가설 3 검증결과 : 성숙기

<표 11> OLS회귀분석 결과 ( $|PMDA|$ )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PMDA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Intercept                          | 5.991                         | 18.866***        | 5.989         | 18.861***      |
| IC                                 | -0.189                        | -1.937*          | -1.62         | -2.418**       |
| <b>IC <math>\times</math> LC_M</b> | <b>-3.383</b>                 | <b>-4.491***</b> | <b>-2.370</b> | <b>-1.687*</b> |
| LC_M                               | 0.108                         | 6.776***         | 0.108         | 6.822***       |
| SIZE                               | -0.008                        | -10.451***       | -0.008        | -10.438***     |
| LEV                                | 0.036                         | 8.208***         | 0.036         | 8.210***       |
| GRW                                | 0.016                         | 8.991***         | 0.015         | 8.949***       |
| ROA                                | -0.084                        | -11.304***       | -0.084        | -11.279***     |
| CFO                                | -0.012                        | -1.251           | -0.012        | -1.276         |
| PPER                               | -0.049                        | -6.640***        | -0.049        | -6.619***      |
| LARGEST                            | -0.032                        | -6.071***        | -0.032        | -6.113***      |
| FORN                               | 0.020                         | 2.077**          | 0.020         | 2.062**        |

〈표 11〉 OLS회귀분석 결과 ( $|PMDA|$ ) (계속)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PMDA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LOSS         | 0.008                         | 3.774***  | 0.008     | 3.797***  |
| AGE          | -0.006                        | -4.872*** | -0.006    | -4.860*** |
| Fixed Effect | Included                      |           | Included  |           |
| F-value      | 33.336***                     |           | 33.246*** |           |
| Adj_Rsq      | 0.358                         |           | 0.358     |           |
| N_obs        | 7,475                         |           | 7,475     |           |

1) 변수의 정의는 &lt;표 4&gt;를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12〉 OLS회귀분석 결과 ( $|ACCQ|$ )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ACCQ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Intercept      | -5.988                        | -18.860***     | -5.987        | -18.785***     |
| IC             | 1.898                         | 2.629**        | 1.895         | 2.404***       |
| <b>IC×LC_M</b> | <b>-1.675</b>                 | <b>-1.951*</b> | <b>-1.673</b> | <b>-1.801*</b> |
| LC_M           | 0.108                         | 6.824***       | 0.105         | 6.599***       |
| SIZE           | -0.008                        | -10.570***     | -0.008        | -10.573***     |
| LEV            | 0.024                         | 5.489***       | 0.024         | 5.501***       |
| GRW            | 0.014                         | 8.530***       | 0.014         | 8.521***       |
| ROA            | -0.118                        | -16.097***     | -0.117        | -16.068***     |
| CFO            | -0.013                        | -1.434         | -0.014        | -1.443         |
| PPER           | -0.055                        | -7.507***      | -0.055        | -7.498***      |
| LARGEST        | -0.024                        | -4.778**       | -0.024        | -4.800***      |
| FORN           | 0.034                         | 3.685***       | 0.034         | 3.681***       |
| LOSS           | 0.009                         | 4.616***       | 0.009         | 4.617***       |
| AGE            | -0.007                        | -5.876***      | -0.007        | -5.888***      |
| Fixed Effect   | Included                      |                | Included      |                |
| F-value        | 44.992***                     |                | 44.989***     |                |
| Adj_Rsq        | 0.403                         |                | 0.403         |                |
| N_obs          | 7,475                         |                | 7,475         |                |

1) 변수의 정의는 &lt;표 4&gt;를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11>과 <표 12>는 본 연구의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식(4)의 OLS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식(4)는 성숙기일 때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가 다른 유형의 수명주기 단계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보고의 질 중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재무보고의 질( $|PMDA|$ )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회계경력과 성숙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ANCAR \times LC\_M$ )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3.383$  ( $t = -4.491$ )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내부회계인력 평균 경력과 성숙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EMCAR \times LC\_M$ )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2.370$  ( $t = -1.687$ )로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둘째, 재무보고의 질 중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 재무보고의 질( $|ACCQ|$ )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회계경력과 성숙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ANCAR \times LC\_M$ )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1.675$  ( $t = -1.951$ )로, 내부회계인력 평균 경력과 성숙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EMCAR \times LC\_M$ )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1.673$  ( $t = -1.801$ )로 각각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sup>9)</sup> 이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자와 내부회계인력의 경력으로 측정한 내부회계 전문성이 성숙기 기업에서 재무보고 품질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강화됨을 암시한다. 즉, 실적은 높지만 성장가능성이 낮은 성숙기 기업은 투자자들이 현재 이익 실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감시 효과가 강하게 작동한다. 따라서 경력 기반의 전문성은 기업의 재량적 회계선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재무보고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마. 가설 4 검증결과 : 쇠퇴기

<표 13> OLS회귀분석 결과 ( $|PMDA|$ )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PMDA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Intercept      | 5.625                         | 18.118***      | 5.621        | 18.107***       |
| IC             | -0.202                        | -2.197**       | -1.653       | -4.590***       |
| <b>IC×LC_D</b> | <b>2.135</b>                  | <b>2.771**</b> | <b>2.405</b> | <b>2.424***</b> |
| LC_D           | 0.243                         | 6.361***       | 0.441        | 6.310***        |
| SIZE           | -0.008                        | -10.310***     | -0.008       | -10.295***      |
| LEV            | 0.036                         | 8.188***       | 0.036        | 8.176***        |
| GRW            | 0.015                         | 8.809***       | 0.015        | 8.783***        |

9) 성숙기를 제외한 수명주기를 모두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결과와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3〉 OLS회귀분석 결과 ( $|PMDA|$ ) (계속)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PMDA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i>t</i> -value | $\beta$   | <i>t</i> -value |
| <i>ROA</i>     | -0.084                        | -11.351***      | -0.084    | -11.290***      |
| <i>CFO</i>     | -0.012                        | -1.264          | -0.012    | -1.264          |
| <i>PPER</i>    | -0.050                        | -6.718***       | -0.050    | -6.707***       |
| <i>LARGEST</i> | -0.032                        | -6.110***       | -0.032    | -6.141***       |
| <i>FORN</i>    | 0.019                         | 1.926*          | 0.019     | 1.918*          |
| <i>LOSS</i>    | 0.008                         | 4.018***        | 0.008     | 4.078***        |
| <i>AGE</i>     | -0.006                        | -4.859***       | -0.006    | -4.896***       |
| Fixed Effect   | Included                      |                 | Included  |                 |
| F-value        | 33.295***                     |                 | 33.270*** |                 |
| Adj_Rsq        | 0.358                         |                 | 0.358     |                 |
| N_obs          | 7,475                         |                 | 7,475     |                 |

1) 변수의 정의는 <표 4>를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14〉 OLS회귀분석 결과 ( $|ACCQ|$ )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ACCQ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i>t</i> -value | $\beta$      | <i>t</i> -value |
| <i>Intercept</i>      | -5.621                        | -18.108***      | -5.627       | -18.558***      |
| <i>IC</i>             | -0.848                        | -2.544**        | -0.853       | -2.919*         |
| <b><i>IC×LC_D</i></b> | <b>0.232</b>                  | <b>5.720***</b> | <b>0.229</b> | <b>5.495***</b> |
| <i>LC_D</i>           | 0.241                         | 6.301***        | 0.443        | 6.451***        |
| <i>SIZE</i>           | -0.008                        | -10.495***      | -0.008       | -10.499***      |
| <i>LEV</i>            | 0.023                         | 5.436***        | 0.023        | 5.434***        |
| <i>GRW</i>            | 0.014                         | 8.423***        | 0.014        | 8.397***        |
| <i>ROA</i>            | -0.117                        | -16.055***      | -0.117       | -16.041***      |
| <i>CFO</i>            | -0.013                        | -1.397          | -0.013       | -1.394          |
| <i>PPER</i>           | -0.054                        | -7.431***       | -0.054       | 7.413***        |

〈표 14〉 OLS회귀분석 결과 ( $|ACCQ|$ ) (계속)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ACCQ $ |           |           |           |
|--------------|-------------------------------|-----------|-----------|-----------|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LARGEST      | -0.024                        | -4.824*** | -0.024    | -4.832*** |
| FORN         | 0.034                         | 3.652***  | 0.034     | 3.660***  |
| LOSS         | 0.009                         | 4.759***  | 0.009     | 4.770***  |
| AGE          | -0.007                        | -6.124*** | -0.007    | -6.133*** |
| Fixed Effect | Included                      |           | Included  |           |
| F-value      | 44.686***                     |           | 44.682*** |           |
| Adj_Rsq      | 0.402                         |           | 0.402     |           |
| N_obs        | 7,475                         |           | 7,475     |           |

1) 변수의 정의는 &lt;표 4&gt;를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13>과 <표 14>는 본 연구의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한 식(5)의 결과를 제시한다. 식(5)는 쇠퇴기일 때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가 다른 유형의 수명주기 단계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보고의 질 중 성과 대응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재무보고의 질( $|PMDA|$ )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회계경력과 쇠퇴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ANCAR \times LC\_D$ )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2.135( $t=2.771$ )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내부회계인력 평균 경력과 쇠퇴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EMCAR \times LC\_D$ ) 변수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2.405( $t=2.424$ )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둘째, 재무보고의 질 중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 재무보고의 질( $|ACCQ|$ )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회계경력과 쇠퇴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ANCAR \times LC\_D$ )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0.232( $t=5.720$ )으로, 내부회계인력 평균 경력과 쇠퇴기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MEMCAR \times LC\_D$ )의 회귀계수인  $\beta_2$ 는 0.229( $t=5.495$ )로 각각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쇠퇴기일 때 내부회계관리자 및 내부회계인력의 경력으로 측정한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완화됨을 시사한다. 즉, 실적과 성장 가능성이 모두 낮은 쇠퇴기 기업은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익을 조정하는 데 경력기반 전문성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 품질 간 양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3. 추가분석 : 성향점수매칭 기법(PSM ;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기업의 수명주기는 기업의 설립부터 쇠퇴까지 일련의 과정으로서, 그러나 각 수명주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각 수명주기별로 고유하게 나타나는 내재적 특성에서 비롯된 내생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는 우수한 분석 방법인 성향점수매칭 기법(PSM :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우선 각 수명주기별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조군 표본과 직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수명주기 자체에 따른 내재적 특성을 통제하여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수명주기에 따른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4개의 수명주기 변수(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대하여, 본 분석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식(8)–식(11)과 같이 추정하고 각 변수에 대해 유사한 성향점수를 가진 대조군 표본을 1 : 1로 매칭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begin{aligned} LC\_I = & \beta_0 + \beta_1 SIZE + \beta_2 LEV + \beta_3 GRW + \beta_4 ROA + \beta_5 CFO + \beta_6 PPER \\ & + \beta_7 LARGEST + \beta_8 FORN + \beta_9 LOSS + \beta_{10} AGE \\ &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8)}$$

$$\begin{aligned} LC\_G = & \beta_0 + \beta_1 SIZE + \beta_2 LEV + \beta_3 GRW + \beta_4 ROA + \beta_5 CFO + \beta_6 PPER \\ & + \beta_7 LARGEST + \beta_8 FORN + \beta_9 LOSS + \beta_{10} AGE \\ &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9)}$$

$$\begin{aligned} LC\_M = & \beta_0 + \beta_1 SIZE + \beta_2 LEV + \beta_3 GRW + \beta_4 ROA + \beta_5 CFO + \beta_6 PPER \\ & + \beta_7 LARGEST + \beta_8 FORN + \beta_9 LOSS + \beta_{10} AGE \\ &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10)}$$

$$\begin{aligned} LC\_D = & \beta_0 + \beta_1 SIZE + \beta_2 LEV + \beta_3 GRW + \beta_4 ROA + \beta_5 CFO + \beta_6 PPER \\ & + \beta_7 LARGEST + \beta_8 FORN + \beta_9 LOSS + \beta_{10} AGE \\ &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11)}$$

<표 15>는 각 수명주기에 해당되는 표본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표본을 1 : 1 매칭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up>10)</sup>

10) 대부분의 변수에서 매칭 후 표준화 차이가 0.1 이하로 감소하여 이는 두 집단이 관측 가능한 특성 측면에서 충분한 균형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즉 수명주기 자체에 따른 내생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이 질적으로 유지됨을 뒷받침한다.

〈표 15〉 OLS회귀분석 결과 (성향점수매칭)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PMDA |                 |               |                 | Dependent Variable :  ACQI |               |              |               |
|----------------|----------------------------|-----------------|---------------|-----------------|----------------------------|---------------|--------------|---------------|
|                | MANCAR                     |                 | MEMCAR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Intercept      | 5.436                      | 17.676***       | 5.215         | 17.605***       | -4.870                     | -17.814***    | -5.184       | -17.728***    |
| IC             | -0.980                     | -2.178**        | -1.770        | -3.376***       | -0.502                     | -1.471        | -0.053       | -0.536        |
| <b>IC×LC_I</b> | <b>2.661</b>               | <b>3.980***</b> | <b>3.071</b>  | <b>5.634***</b> | <b>2.874</b>               | <b>1.169</b>  | <b>3.130</b> | <b>1.151</b>  |
| LC_I           | 0.526                      | 3.133***        | 0.461         | 3.164***        | 0.311                      | 4.132***      | 0.342        | 4.229***      |
| Controls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 Fixed Effect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 F-value        | 25.711***                  |                 | 25.710***     |                 | 26.019***                  |               | 26.199***    |               |
| Adj_Rsq        | 0.164                      |                 | 0.165         |                 | 0.142                      |               | 0.147        |               |
| N_obs          | 2,168                      |                 | 2,168         |                 | 2,168                      |               | 2,168        |               |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PMDA |                 |               |                 | Dependent Variable :  ACQI |               |              |               |
|                | MANCAR                     |                 | MEMCAR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Intercept      | 5.154                      | 18.157***       | 5.711         | 18.081***       | -5.652                     | -18.269***    | -5.694       | -18.656***    |
| IC             | -0.340                     | -1.918*         | -0.549        | -2.528**        | -0.192                     | 1.033         | -0.003       | 0.999         |
| <b>IC×LC_G</b> | <b>0.069</b>               | <b>-0.062</b>   | <b>-0.024</b> | <b>0.378</b>    | <b>0.356</b>               | <b>-0.265</b> | <b>0.425</b> | <b>-0.408</b> |
| LC_G           | 0.002                      | 1.160           | 0.003         | 1.378           | 0.005                      | 0.938         | 0.006        | 1.004         |
| Controls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 Fixed Effect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 F-value        | 26.109***                  |                 | 25.754***     |                 | 26.333***                  |               | 22.707***    |               |
| Adj_Rsq        | 0.169                      |                 | 0.163         |                 | 0.196                      |               | 0.144        |               |
| N_obs          | 3,452                      |                 | 3,452         |                 | 3,452                      |               | 3,452        |               |

〈표 15〉 OLS회귀분석 결과 (성향점수매칭) (계속)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PMDA |                  |               |               | Dependent Variable :  ACQI |                 |               |                 |
|-----------------------|----------------------------|------------------|---------------|---------------|----------------------------|-----------------|---------------|-----------------|
|                       | MANCAR                     |                  | MEMCAR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i>Intercept</i>      | 5.913                      | 18.623***        | 5.921         | 18.818***     | -5.512                     | -18.548***      | -5.939        | -18.592***      |
| <i>IC</i>             | 0.422                      | -1.720*          | -1.421        | -1.857*       | 1.543                      | 2.000*          | 1.889         | 1.867*          |
| <b><i>IC×LC_M</i></b> | <b>-3.233</b>              | <b>-3.983***</b> | <b>-1.689</b> | <b>-1.062</b> | <b>-0.999</b>              | <b>-1.713*</b>  | <b>-1.594</b> | <b>-1.495</b>   |
| <i>LC_M</i>           | 0.330                      | -6.413***        | -0.104        | -6.158***     | -0.047                     | -6.689***       | -0.098        | -6.045***       |
| <i>Controls</i>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 Fixed Effect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 F-value               | 63.935***                  |                  | 64.154***     |               | 64.063***                  |                 | 63.984***     |                 |
| Adj_Rsq               | 0.193                      |                  | 0.195         |               | 0.174                      |                 | 0.170         |                 |
| N_obs                 | 4,800                      |                  | 4,800         |               | 4,800                      |                 | 4,800         |                 |
|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PMDA |                  |               |               | Dependent Variable :  ACQI |                 |               |                 |
|                       | MANCAR                     |                  | MEMCAR        |               | MANCAR                     |                 | MEMCAR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i>Intercept</i>      | 5.191                      | 17.586***        | 5.422         | 17.943***     | -5.600                     | -18.056***      | -5.040        | -17.912***      |
| <i>IC</i>             | -0.182                     | -2.066*          | -1.317        | -4.564***     | -0.805                     | -2.491**        | -0.602        | -2.666**        |
| <b><i>IC×LC_D</i></b> | <b>1.469</b>               | <b>2.118**</b>   | <b>2.325</b>  | <b>1.772*</b> | <b>0.162</b>               | <b>5.703***</b> | <b>0.156</b>  | <b>5.370***</b> |
| <i>LC_D</i>           | -0.091                     | -5.731***        | -0.017        | -5.727***     | -0.039                     | -5.649***       | -0.046        | -5.899***       |
| <i>Controls</i>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 Fixed Effect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Included        |
| F-value               | 65.021***                  |                  | 65.011***     |               | 65.143***                  |                 | 65.140***     |                 |
| Adj_Rsq               | 0.190                      |                  | 0.187         |               | 0.185                      |                 | 0.189         |                 |
| N_obs                 | 4,500                      |                  | 4,500         |               | 4,500                      |                 | 4,500         |                 |

본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각 재무보고의 질 측정치에 대해 내부회계 전문성과 수명주기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의 유의성이 다소 감소하였을 뿐 대체적으로 질적으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명주기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에 내생성이 일부 존재하지만,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내부회계의 품질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가 상이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보다 강건하게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기업 수명주기에 따라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018년 11월 개정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회계담당자의 근무경력, 회계관련 경력, 교육실적 등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내부회계 인력의 전문성과 회계정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전문성이 높을수록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된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기업 수명주기를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과 내부회계 인력의 평균 경력을 내부회계 전문성의 대용치로, 재무적 발생액의 절대값과 발생액의 질의 절대값을 재무보고 질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OLS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도입기와 쇠퇴기에는 내부회계 전문성과 재무보고 질 간의 양의 관계가 완화되었다. 도입기 기업은 높은 자본 수요와 낮은 제도 성숙도로 인해, 쇠퇴기 기업은 실적 부진과 낮은 성장성으로 인해 전문성을 이익조정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반면 성장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숙기에는 감시효과가 강화되어 두 변수 간 양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즉 성숙기에는 투자자와 외부감사인 감시가 강화되면서 내부회계 전문성이 재무보고의 신뢰성 제고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명주기 단계에 따라 내부회계 인력의 평균 경력수준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에도 동일한 전문성이 도입기·쇠퇴기에는 재무보고 질 제고 효과가 약화되고, 성숙기에는 재무보고 질 개선 효과가 강화된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가 전문성 자체의 내생성보다 그 전문성이 어떻게 활용되는 기업 수명주기의 차이에 더 크게 기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명주기 단계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숙도, 자금 수요, 투자자의 정보수용 행태, 경영자의 의사결정 특성이 달라져 내부회계 전문성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의 변수 측정 과정에서 내부회계 인력의 경력 산정 기준이 기업별로 상이하고, 수명주기 구분 시 비재무적 요인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측정오

차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보고 질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기업의 환경적 요인, 특히 수명주기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할 때, 단순히 제도 도입 여부나 인력 규모만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수명주기 단계와 그에 따른 감시 환경·회계선택 유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감독당국과 규제기관이 내부회계 관련 공시 및 규제체계를 설계할 때,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차별적 감시·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영. 2019. “경제정의지수가 우수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의 특성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32권 제6호 : 1087-1107.
- 마희영 · 정진향. 2016.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력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31권 제2호 : 329-350.
- 배한수 · 권선국. 2015.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특성과 기업지배구조가 자산회령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4권 제6호 : 1759-1783.
- 신보선 · 한중수 · 신혜정. 201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 특성과 경영자-감사인간의견 불일치 : 감사 전(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화 규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7권 제6호 : 121-155.
- 신혜정 · 한중수. 2018.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위험 : 내부회계관리자의 등기이사 여부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7권 제2호 : 1-41.
- 양준선 · 여영준. 201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적자원투자와 재무보고의 품질”. 관리회계연구. 제16권 제1호 : 75-107.
- 오수진 · 유승원. 2022. “내부회계관리자의 경력과 가치관련성”.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4권 제1호 : 155-184.
- 이균봉 · 지상현 · 류예린. 2012. “기업지배구조와 회계보수주의의 관련성 : 감사품질에 따라”.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3호 : 153-182.
- 이준일 · 최선화 · 최종학. 201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와 감사보수와의 관계”.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51권 : 191-225.
- 정진향 · 마희영. 2012. “내부회계관리 운영인력의 특성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구 동림경영연구). 제44권 : 101-117.
- 채수준 · 이호영 · 유혜영. 2012. “내부회계담당인력의 인적자원 특성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7권 제1호 : 229-265.
- Anthony, J. H., and Ramesh, K. 1992. Association between accounting performance measures and stock prices : A test of the life cycle hypothe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5(2-3) : 203-227.
- Bens, D. A., Nagar, V., and Wong, M. F. 2002. Real investment implications of employee stock option exercis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2) : 359-393.
- DeAngelo, H., DeAngelo, L., and Stulz, R. M. 2006. Dividend policy and the earned/contributed capital mix : a test of the life-cycle theor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2) : 227-254.
- Dechow, P. M., and Dichev, I. D. 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77(s-1) : 35-59.
- Dickinson, V. 2011. Cash flow patterns as a proxy for firm life cycle. *The Accounting Review*.

- 86(6) : 1969–1994.
- Faff, R., Kwok, W., Podolski, E. J., and Wong, G. 2016. Do corporate policies follow a life–cycl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69 : 95–107.
- Fodor, M., Dhanani, L., and Mukherjee, A. 2021.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IPO Underpricing. *Journal of Financial Reporting*. 3(1) : 1–27.
- Gort, M., and Klepper, S. 1982. Time paths in the diffusion of product innovations. *Economic Journal*. 92 : 630–653.
- Hambrick, D. C., and Schecter, S. M. 1983. Turnaround strategies for mature industrial–product business unit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2) : 231–248.
- Hasan, M. M., and Cheung, A. 2018. Organization capital and firm life cycl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48 : 556–578.
- Hasan, M. M., and Habib, A. 2017. Corporate life cycle, organizational financial resourc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Contemporary Accounting and Economics*. 13(1) : 20–36.
- Hribar, P., and Yehuda, N. 2008. Reconciling growth and persistence as explanations for accrual mispricing. *Johnson School Research Paper Series*. (11–09).
- Koh, S. K., Durand, R. B., Dai, L., and Chang, M. 2015. Financial distress : Lifecycle and corporate restructuring.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33 : 19–33.
- Koo, Ja Eun and Ki, Eun Sun, 2020. Internal Control Personnel’s Experience, Internal Control Weaknesses, and ESG Rating, *SUSTAINABILITY*. 12(20) : 1–16.
- Kothari, S. P., Leone, A. J., and Wasley, C. E.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1) : 163–197.
- Krishnan, G. V., Myllymäki, E. R., and Nagar, N. 2021. Doe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vary across firm life cycle?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48(7–8) : 954–987.
- Nalukenge, I., Nkundabanyanga, S. K., and Ntayi, J. M. 2017. Internal audit function, audit committee effectivenes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rial Auditing Journal*. 32(5) : 550–578.
- Oehmichen, J., Schrapp, S., & Wolff, M. 2017. Who needs experts most? Board industry expertise and strategic change – a contingency perspectiv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8(3) : 645–656.
- Phornlaphatrachakorn, K. 2019. The impact of internal control effectiveness on firm success through mediating factors of financial reporting quality.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26(4) : 523–541.
- Prawitt, D. F., Smith, J. L., and Wood, D. A. 2009. Internal audit quality and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84(4) : 1255–1280.

# Internal Accounting Expertise and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 : Focusing on Differential Effects Across the Corporate Life Cycle

Ji Min Kim\* · Sung Ook Park\*\*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xpertise of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influences the quality of financial statements across different stages of a firm's life cycle. Internal accounting functions not only fulfill legal requirements but also serve as a crucial management tool that enhances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ensures the accuracy of financial information, protects assets, and supports the execution of business strategies. In Korea, the disclosure of detailed information on internal accounting has led to continu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tise of internal accounting staff and accounting information, as well as its implications for various accounting decis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internal accounting expertise on the quality of financial statements.

The sample consists of non-financial firm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over a five-year period from 2018 to 2022. Internal accounting data are manually collected from the "Internal Accounting Operation Report" section of DAR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rofessional experience of internal accounting staff affects the quality of financial statement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firm's stage of development. In the introduction stage, the positive effect of expertise is weakened, as firms entering new businesses face high capital-raising demands and may opportunistically exploit internal accounting expertise. In the growth stage, the effect is insignificant, since firms can finance investment needs through internal cash generation and investors focus more on growth potential than on reported earnings, reducing incentives to manipulate profits. In the maturity stage, the positive effect of expertise is strengthened, as investors become highly sensitive to reported earnings and monitoring effects intensify. Internal accounting expertise is therefore used to enhance the quality of financial statements and mitigate the risk of accounting failures. In the decline stage, however, the effect weakens again, as poor

\* Ph.D.,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Certified Tax Accountant, jiminkim@khu.ac.kr,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sopark@khu.ac.kr, Corresponding Author

performance and limited growth prospects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s. Expertise may either fail to be properly utilized or be opportunistically employed to conceal weak earnings or adjust profits to support new investment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impact of internal accounting expertise is closely tied to the firm's life cycle stage, showing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same institutional mechanism varies depending on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ly, evaluating and operating internal accounting systems requires consideration of the firm's developmental context. By incorporating environmental factors into the analysis,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prior research that focused solely on institutional aspects. The finding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internal accounting policies and corporate accounting strategies, contributing to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how internal accounting expertise shape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Key words〉 Internal Accounting, Internal Accounting Expertis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Corporate Life Cycle